해양사고 인명피해 급증

지난해 전남북·제주서 33명 사망·실종 … 전년비 67% 늘어

승무원 안전불감증 여전

지난해 호남지역의 해양사고가 급증하면서 인명피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사고의 절반 이상이 선박 정비 및 경계 소홀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 승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해양안전심판원 관할인 전남·북(제주포함)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07건에 이른다.

이는 1년 전인 2009년(141건)보다 46.8%(66건) 증가한 규모다. 더욱이 해양사고 급증에 따라 사망·실종자가 33명에 달하면서 전년(18명)보다 인명 피해가 66.7%(12명)나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48건), 좌초(32건), 화재(11건), 침몰(7건), 접촉(1건) 등의 순이었다.

기관손상과 충돌이 전체 해양사고의 53.6%(111건)를 차지한 것은 승무원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 증가에 주된 요인이 됐음을 의미한다. 전체 사고 2건 중 1건 이상이 기관정비점검 및 항해중 경계 소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무리한 조업에 따른 사고가 속출한 가운데 인력난으로 인해 미숙련 외국인 선원 고용이 늘어난 것도 해양사고 증가에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해상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박 규모도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호남지역 사고 피해 선박은 총 285척으로, 전년(178척)에 비해 60.1%(107척) 증가했다.

선박별로는 어선이 203척으로 가장 많았고, 예부선(40척), 화물선(20척), 유조선(11척), 여객선(4척) 등이었다. 이 가운데 유조선 피해는 전년(1척)에 비해 10배 가량 늘어나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국내 전체의 선박업계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해 국내 총 해양사고 건수는 738건으로, 전년(723건)보다 2.1%(15건) 증가했다.

또 해양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총 176명으로, 전년(107명)보다 64.5%(69명)나 늘었다. 사고 시간대로는 새벽 4시~오전 8시가 전체의 21%(157건)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고원인은 기관손상(32.0%)과 충돌(23.6%) 등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이러고도 출산장려?

광주 직장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26곳 중 8곳 "제재 규정없다" 외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광주지역 사업장 10곳 가운데 3곳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사업자는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시설 위탁 또는 보육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지역 내 의무설치 대상은 모두 26곳이다.

이 중 18곳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8곳(병원 2곳, 대학 1곳, 기업체 5곳)이 관련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권장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행정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육시설설치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해당 병원과 대학 등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은 필요하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설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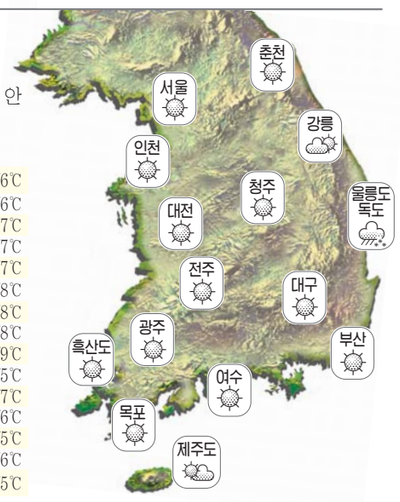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25분 해짐 18시 08분 달뜸 10시 02분 달짐 23시 54분

안개 속을 걷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안개끼는 곳이 있겠다.

광 주	구름조금	-1/6℃
목 포	구름조금	0/6℃
여 수	구름조금	1/7℃
나 주	구름조금	-2/7℃
완 도	구름조금	0/7℃
구 례	구름조금	-2/8℃
해 남	구름조금	-1/8℃
장 흥	구름조금	-1/8℃
순 천	구름조금	0/9℃
영 광	구름조금	-2/5℃
진 도	구름조금	0/7℃
전 주	구름조금	-2/6℃
군 산	구름조금	-3/5℃
남 원	구름조금	-4/6℃
흑산도	구름조금	4/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밀물	썰물
목포	05:35 17:34	10:46 23:00
여수	00:08 12:05	05:58 18:2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날 씨						
최저/최고	-3/4	-5/3	-6/1	-5/2	-6/1	-6/4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위생점검 초콜릿·사탕류 판매가 급증하는 '밸런타인데이'(14일)를 앞둔 8일 광주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유통기한 확인과 제품 변질 여부 등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폐렴 환자 56% 50대 이상 고령

전남대병원, 10세 미만은 30% … 연 60~70명 사망

폐렴 환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2003~2010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8201명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폐렴 환자는 전체의 55.9%인 4585명이었고 10세 미만 환자는 29.6%(2424명)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5223명, 여자가 2978명으로 바깥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이 약 1.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529명으로 한해 평균 60~70명이 폐렴으로 목숨을 잃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으로 기침·가래·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피로감·근육통·관절통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권용수 교수는 "독감이나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예방을 위한 백신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접종하는 것이 좋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노인, 어린 아이들은 환절기에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결혼 이주민 절반이상 "나는 진보"

중도 31% 보수 16%

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 중 절반은 자신의 정치이념을 진보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몽골 출신의 아리옹 수헤르테이씨는 '이주 외국인의 정치적 정향(定向) : 결혼 이민자의 정치참여 양상을 중심으로'라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석사 논문에서 8일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영주권자와 한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2%는 자신의 정치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답했다. 중도라는 응답은 31.3%, '보수'는 16.4%였다.

'진보' 응답 비율은 베트남 출신이 76.4%로 가장 높은 반면, 일본 출신이 26.3%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11.5%는 정당에, 20%는 시민단체에 가입한 경험이 있었다.

투표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주민은 32%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9.4%로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무등산 정상 개방 무산

공군, 군사시설보호 이유 최종 반대

광주시 "계속 협상"

군부대가 주둔하는 광주 무등산 정상 개방 추진이 군부대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면서 군부대가 주둔하는 정상 부근을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공군본부와 협의했으나 공군본부가 군사시설보호를 이유로 최종 반대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군본부에 무등산 정상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해 최근 공군에서 현장답사까지 마쳤으나 현재로선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군 당국은 정상에 레이더망 등 주요 군사시설 있고 장병이 주둔하고 있어 개방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부분 개방이라도 가능하도록 군 당국과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현재 해발 1187m 무등산 정상엔 공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등산객은 해발 1100m인 서석대까지만 산행할 수 있으며 수년째 군부대 개방을 주장해오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서울대 수시모집 논술고사 폐지

정시모집에선 유지

서울대는 8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열린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인문계열 특기자전형에서 실시하던 논술고사를 2012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인문대와 사회대 등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그동안 수시 특기자전형 2단계 전형에서 서류평가(50%)와 면접 및 구술(30%), 논술(20%) 성적을 반영했으나, 논술이 폐지되면 서류와 면접 · 구술 고사로만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그러나 정시모집에서 치러지는 논술고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대 입학생 3천400여명 중 65~70%가 논술을 치르지 않고 입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교조 교사 명단 인터넷 공개 안돼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자 항고했다. /연합뉴스